

vol.05

2020. 03

항만과 산업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0. 3. 6 편집&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품목별 동향	11

주요 항만 동향



- 부산항, 신항 2단계 항만장비 국산화로 6천억 원 생산유발효과 전망
- 여수·광양항, 현대차와 수소전기트럭 개발 MOU 체결
- 울산항,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노후예산 LNG연료 추진 전환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평택·당진항, '19년 평택~중국 카페리 여객 최다 실적 기록
- 목포항, 신항 배후부지 국가 에너지산업단지 지정

주요 품목 동향



- 시멘트, '20년 건설자재 수요 감소세 전망
- 모래, 전국 골재 가격 하락세 심화
- 석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 필요성 제기
- 철재, '20년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 자동차, 국내 자동차 연간 생산량 400만 대 붐기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항 2단계 항만장비 국산화로 6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전망¹⁾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2-5단계에 설치될 항만 시설 장비를 국내발주, 2,110억 원의 부가가치와 2,386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기존 부산항 신항에 설치되어 있는 안벽크레인(69기)은 모두 중국산인 반면 북항은 47기 중 42기가 국산 제품임
- 그동안 중국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국내 항만에 국산 장비가 공급되지 못했으나 국내 장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건설되는 신항 터미널에는 국산 항만 장비가 도입될 예정
- 추가로 건설되는 2-6단계에도 국산 항만장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항만장비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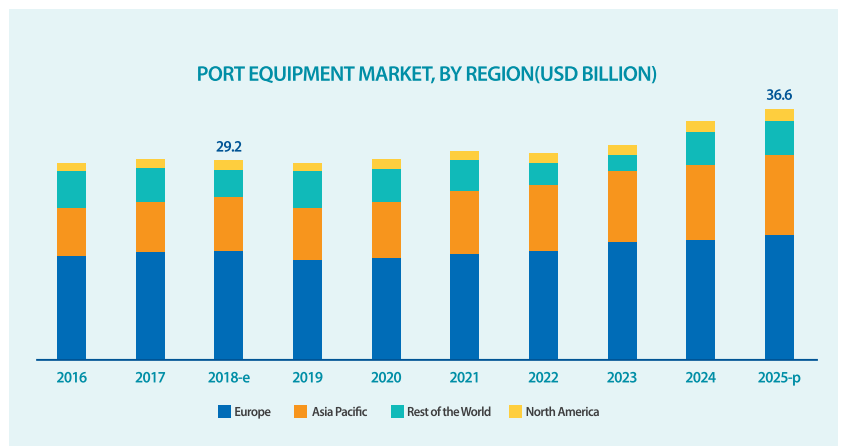
전 세계 항만장비 시장 규모는 현재 약 3조 5,000억 원('18년 기준)으로 연평균 3.3% 성장하여 '25년에는 4조 4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²⁾

-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매년 터미널에 신규 항만장비가 도입되고 있어 항만장비 시장 성장률이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음
- 향후 항만장비의 국내 발주 및 국산화를 지속할 경우 국내 장비 연관 산업 기반 조성뿐 아니라 시장 확대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5172&mcode=MN1387>, (2020. 02. 20 검색)

2)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port-equipment-market-184119530.html>, (2020. 02. 20 검색)

전 세계 지역별 항만 장비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자료: www.marketsandmarkets.com

② 부산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제한 및 검역강화³⁾

☞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었던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이 취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검역 강화와 중국, 대만의 크루즈 기항 중단으로 지난 2월 11과 12일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이 취소됨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부산항에 대규모 승객을 싣고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의 기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류공급 등 선용품 선적을 목적으로 한 크루즈선박들은 여객 없이 부산항에 두 차례 입항하였음

- 해당 선박은 입항 전 14일 동안 중국내 경유가 없었으며 선원의 하선 없이 철저한 사전 검역을 실시한 후 입항하였음

☞ 크루즈선의 검역 심사과정도 서류 사전심사-입항시 검역관 검사-터미널 발열 카메라 등 3단계로 강화되어 진행됨

- 여객터미널 운영도 1터미널과 2터미널을 각각 한-일 정기여객선 전용, 국제 크루즈 전용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임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5155&page=1&mCode=MNI387>, (2020. 02. 20 검색)

2) 인천항

① 화주 및 포워더 대상, 인센티브 지급 예정⁴⁾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19년 하반기 '컨'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더 및 화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

- 지급 기준은 포워더의 경우 '19년 하반기 인천항 '컨' 누적 수출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0톤 이상 증가하였을 때이며,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⁵⁾을 실적산정 기준으로 함
-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천항의 원양항로 및 냉동·냉장 화물 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되며, '19년 하반기 기준 원양항로 직항을 통한 수출입 실적이 있거나 냉동·냉장 컨테이너 수출 실적을 보유한 화주가 대상임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5939&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0.02.11. 검색)

5) 집단선하증권을 발급 받은 운송증개인은 선적인 앞으로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되며, 해당 선하증권을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지칭함

6)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6022&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0.02.23. 검색)

② 씨랜드 머스크(Sealand Maersk), 동남아서비스 신규 운항 시작⁶⁾

☞ 씨랜드 머스크는 인천발 동남아시아 서비스인 'IA88(Intra Asia 88)'을 개설하고 신규 운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2월 23일 인천신항 한진 '컨'터미널에 입항한 'NORDPANTHER'호를 시작으로 향후 IA88 노선에는 총 5척의 선박이 투입되어 주당 1항차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신규 노선의 기항지는 '인천-광양-히비키시코-부산-하카타-모지-부산-상하이-닝보-호찌민시-시아누크빌-램차방-하이퐁-샤먼-상하이-인천' 순으로 운영될 예정임
- 금번 신규 노선 추가로 베트남을 기항하는 정기선 서비스는 총 19개로 증가하였으며, 호찌민과 하이퐁을 동시에 기항하는 특징이 있어 향후 베트남과의 '컨'교역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③ 연안여객터미널, 방역 강화 예정⁷⁾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자들에 대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이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총 2회 시행하던 방역횃수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등 총 4회로 2배 확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자진신고소’ 설치 등을 통해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이 밖에도 터미널 내 상주직원들의 마스크 및 장갑 착용을 의무화 하고, 대합실 내부나 입구에는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와 소독기 등을 설치할 계획임

7)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6034&searchSelect=title&boardKey=217>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 안전·보안드론 운영 예정⁸⁾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내 안전·보안드론 공동 운영 업무협약(MOU) 체결

- 지난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 내 보안구역 감시활동을 위해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와 MOU를 체결함
- 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여수·광양항 항만구역 내의 보안구역에서 안전·보안드론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
- 또한 YGPA는 여수·광양항에서 안전·보안드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과 매년 3명씩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여수광양항만관리는 인력지원 및 공조체계 유지하기로 함
- YGPA에서는 이번 MOU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안전보안드론 3기의 운용성과 보안능력이 향상돼 여수·광양항 보안사고 감소와 모·자회사 간 협력 강화로 여수·광양항의 지속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② 여수광양항만공사-현대차 수소전기트럭 개발 업무협약 체결⁹⁾

☞ 여수항만공사, 광양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트럭 개발 업무협약 체결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14일 ‘친환경 수소전기트럭 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광양항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YGPA와 현대차는 동 MOU를 통해 여수·광양항에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소전기트럭 실증 사업 등 광양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YGPA는 항만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 서측배후단지 인근에 약 2,000m²의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여 ‘23년까지 광양항-부산항(약 320km) 구간에서 물류·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을 시범 운영하고, ‘24년까지 트럭 10대를 추가 투입 할 계획임
- 양사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항만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여수·광양항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8)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0.02.14. 검색\)](http://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jsessionid=8YRtyaUrPG1B1a9QGana4hkz8HBntj1HB9G0cs5rE62oPa94dJfZZnRETJjvCdv.webserver2.servlet_engine1?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643&category=(2020.02.14. 검색))

9)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0.02.17. 검색\)](http://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jsessionid=8YRtyaUrPG1B1a9QGana4hkz8HBntj1HB9G0cs5rE62oPa94dJfZZnRETJjvCdv.webserver2.servlet_engine1?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645&category=(2020.02.17. 검색))

- YGPA는 이번 사업이 수소전기트럭 보급을 통한 운송용 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항만 수소연료전지 분야 확대에 기여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여수·광양항의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20년 목표 물동량 공식 발표¹⁰⁾

- ※ 작년 '18년 처리 실적 2억 300만 톤 대비 소폭 하락한 2억 1백만 톤을 처리한 울산항은 올해 2억 5백만 톤을 목표 처리량으로 제시함
- 미중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세계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특히, 액체화물 중심인 울산항의 감소폭이 컸음
- 작년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감소로 원유수입량이 6.6%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환적물동량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
- 올해는 기존 액체화물 물동량 유치 노력을 이어감과 동시에 규제 완화 등 항만 효율성과 체질개선을 통해 물동량 목표 달성 기대

①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노후예산 LNG연료추진 전환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¹¹⁾

- ※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노후예산 LNG연료추진 전환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시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친환경 선박 확대 및 LNG 연관산업 육성, LNG 예산 신조 국고보조금 및 세제경감 등, LNG 예산 건조를 위한 행정 및 제도 등 협력, LNG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 14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울산시는 세제 감면 및 행정지원, 항만공사는 10억원의 예산 지원, 해양환경공단은 예산 건조 및 선박운영 담당 예정임

10)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0000000&dataId=9780\(2020.1.9\)](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0000000&dataId=9780(2020.1.9))

11)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0000000&dataId=9783\(2020.1.8\)](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0000000&dataId=9783(2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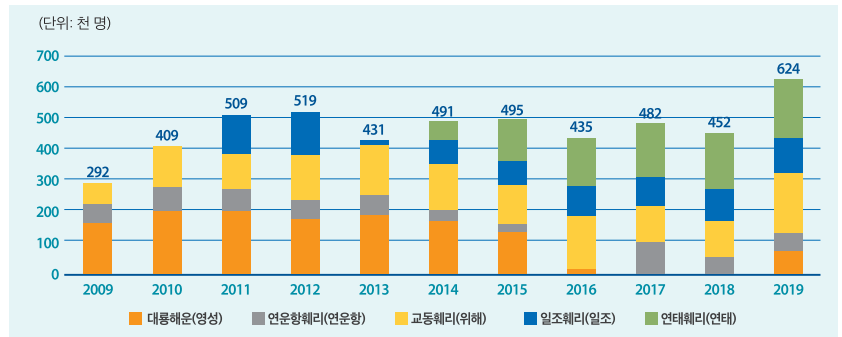
5) 평택·당진항

① '19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평택~중국 카페리 여객,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영향을 받을 전망¹²⁾

-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국을 연결하는 카페리의 '19년 여객 수요가 역대 최대인 62만 4천 명을 기록함
- 평택·당진항 평택지구에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며 총 5개(영성, 연운항, 위해, 일조, 연태)의 국제카페리 항로가 개설되어 있음
- '19년 위해(웨이하이), 일조(르자오), 연태(엔타이) 항로 모두 연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중단되었던 영성(룽청) 항로가 10월부터 운항을 재개하면서 전년 대비 37.8% 증가함
- 평택항로별 여객실적은 위해(19만 4천 명), 연태(18만 6천 명), 일조(11만 3천 명) 영성(7만 3천 명), 연운항(5만 8천명) 순서임

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객통계, 저자 재작성, [http://pyeongtaek.mof.go.kr/article/list.do?menuKey=459&boardKey=26\(2020.02.12. 검색\)](http://pyeongtaek.mof.go.kr/article/list.do?menuKey=459&boardKey=26(2020.02.12. 검색))

평택·당진항 카페리
노선별 연도별 여객 추이



자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객통계, 항만수요예측센터 제작성, <http://pyeongtaek.mof.go.kr/article/ist.do?menuKey=459&boardKey=26> (2020.02.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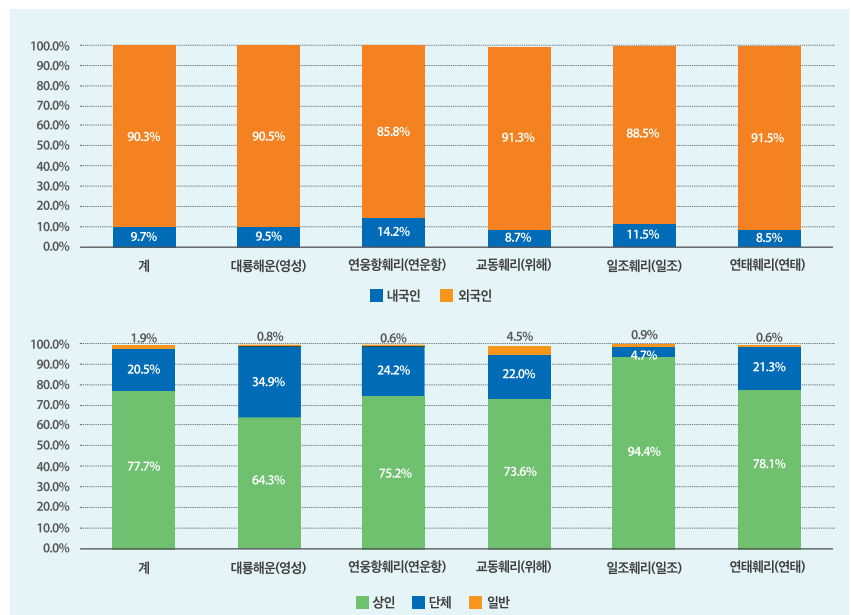
☞ 평택~중국 국제카페리 여객은 외국인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항로별 외국인 여객 비중은 연태(91.5%), 위해(91.3%), 영성(90.5%), 일조(88.5%), 연운항(85.8%) 순서임
-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의 국제카페리 이용 비중이 훨씬 높으며, 특히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과 단체 여객 비중이 높음

☞ 평택~중국 국제카페리 여객은 상인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 여객이 약 20%임

- 항로별 외국인 여객 비중은 연태(91.5%), 위해(91.3%), 영성(90.5%), 일조(88.5%), 연운항(85.8%) 순서임
- 항로별 단체 여객 비중은 영성(34.9%), 연운항(24.2%), 위해(22.0%), 연태(21.3%), 일조(4.7%) 순서임

평택·당진항 카페리
노선별 여객분류(2019년)



자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객통계, 항만수요예측센터 제작성, <http://pyeongtaek.mof.go.kr/article/list.do?menuKey=459&boardKey=26> (2020.02.12. 검색)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28일부터 한-중 카페리 여객수송이 전면 중단됨

- 중국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한-중 카페리 전 노선의 여객수송을 중단했으며, 일부 노선은 화물만 수송하고 있음
- 평택 기항 국제카페리 항로의 경우, 단체 여객 비중이 높지 않아 메르스 사태나 사드(THAAD) 갈등에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여객수송이 중단되면서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카페리항로의 경우, 보따리상의 비중이 매우 높아 철저한 검역이 어렵고 입국자 관리, 마스크 등의 불법반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운항 중단은 바이러스 유입 차단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중 카페리 선사의 운영 악화 및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됨

6) 대산항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인프라 예산 확충¹³⁾

 안전항해와 해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 확충 사업 추진 예정

- 올해 대산청 주요사업으로 충남 태안군 가의도항 방파제 및 안면읍 해상 암초에 등대 및 등표 2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 항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에는 기존의 노후된 항로표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 개선 노력을 통해 해상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http://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189&searchSelect=title&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0.1. 31.\)](http://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189&searchSelect=title&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0.1. 31.))

7) 포항항

①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 및 항만인프라 확충으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기대¹⁴⁾

 영일만항의 '19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2만TEU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증가율은 지난 2년 대비 둔화됨('17년 11.8%→'18년 14.2%→'19년 3.2%)
- 주력 품목인 철강이 감소하였으나 우드펠릿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견인함¹⁵⁾

 올해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물류센터 운영, 인입철도 완공 등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영일만항 배후단지 1,264천㎡ 중에서 1-1단계(535천㎡)가 지난 '18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1-2단계 사업이 조성 중에 있음
- 현재 냉동물류센터 1개소, 수출입 물류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9년 8월 4개 업체가 추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올 하반기 운영 예정임
- 지난 12월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완공되었으며 시운전 등을 거쳐 올 상반기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임

14) 경상북도청 보도자료, [http://www.gb.go.kr/Main/page.do?mnu_uid=208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10&B_NUM=70512301&B_STEP=70512300&B_LEVEL=0&key=0&word=&p1=0&p2=0&V_NUM=1078\(2020.1.27\)](http://www.gb.go.kr/Main/page.do?mnu_uid=208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10&B_NUM=70512301&B_STEP=70512300&B_LEVEL=0&key=0&word=&p1=0&p2=0&V_NUM=1078(2020.1.27))

15) 통합 Port-Mis,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경북도는 이러한 항만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14만 5천TEU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물동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 밝힘

- 컨테이너 RO-RO 및 카페리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진행 중임

8) 동해·묵호항

① '19년 강원도 연안여객선 이용실적 증가, 국제여객선 실적 감소¹⁶⁾

'19년 강원도 여객선 수송실적 전년 대비 2.7% 증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해수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19년 강원도 여객선 수송실적은 '18년 47만 2천 명 대비 2.7% 증가한 48만 5천 명임
- 이중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총 45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강릉-울릉항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4만 명, 묵호-울릉 항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21만 명으로 나타남
- 반면, 한·일 관계 악화, 저가 항공 이용증가 및 여행지 다변화에 따라 동해항과 속초항 등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36.1% 급감함
- 동해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관계와 장기적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국제여객 실적의 조속한 회복은 낙관할 수는 없으나, 동해까지 KTX가 조기 개통되면 연안여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1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http://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108&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 (2020.02.14. 검색)

9) 군산항

① '22년까지 여청도항 노후시설 정비에 150억 원 투입 계획¹⁷⁾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청)은 어항 이용성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과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

-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여청도항은 군산에서 서쪽으로 72km 떨어진 영해기점에 입지한 도서지역으로 접안시설 노후와 계획수심 미확보 등으로 인해 어항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이에 따라 고속차도선의 접안시설 확보와 부잔고 정비·이설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22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 여청도항은 지리적 특성 상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파제 보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으로 예상돼 향후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1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http://gun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6643&boardKey=66&menuKey=456&currentPageNo=1>, (2020. 02. 20 검색)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자료: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mof>),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10) 목포항

① 목포신항 배후부지, 국가 에너지산업단지 지정¹⁸⁾

목포신항 일대와 대양산단은 국가 에너지융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11월 6일, 에너지산업융합산업단지 연계2 지구로 목포대양산단과 목포신항 배후 부지 1.34km²를 포함함
- 연계2 지구는 풍력산업 실증, 생산 등 사업화에 주력하게 되며, 전라남도에는 '29년까지 총 53조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8.2GW, 태양광 1.8GW 등 10GW의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은 상시 고용 4,000여명을 포함한 총 11만 9,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목포신항 일부 부두는 해상풍력 기자재 조립 및 수송 지원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며, 물동량 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전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조립하여 해상으로 수송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용 부두가 필요함
- 해상풍력 물동량 유치는 컨테이너선 기항 감소, 석탄부두의 타 항만 이전, 세월호 거치 등에 따른 물동량 부족으로 부두 이용률이 저조한 목포신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8) 목포시 보도자료(2020.01.23.), [http://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457404&page=4&mode=view\(2020.02.14. 검색\)](http://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457404&page=4&mode=view(2020.02.14. 검색))

목포신항 전경



자료 : 목포시 보도자료(2020.01.23.), http://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457404&page=4&mode=view(2019.02.14. 검색)

11) 마산항

① 마산만 돌섬¹⁹⁾ 시설 확충을 통한 해양 관광활성화 도모²⁰⁾

창원시는 올해 마산만에 위치한 돌섬에 돼지형상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 마산항 2부두 인근에 위치한 마산항관광유람선터미널에 돌섬해상유원지를 오가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19년 17만 4,000명의 관광객이 돌섬을 찾음
- 돌섬은 국내 최초의 해상유원지이며, 올해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19) 돌은 돼지의 옛말이며, 돌섬은 돼지가 누워있는 형상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임)

20) 창원시 보도자료(2020.02.03.),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594361&ptidx=108&mlid=0201020000>(2020.02.14. 검색)

돌섬해상유원지 및 마산항관광유람선터미널 위치



자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세도, <http://masan.mof.go.kr/content/view.do?menuKey=372&contentKey=198>, 항만수요예측센터 제작성(2020.02.14. 검색)

2. 품목별 동향

1) 컨테이너²¹⁾

① '19년 연간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금액 지수는 전년 대비 각각 2.2%, 10.3% 하락함

☞ 한국은행에 따르면 '19년 연간 수출물량지수는 공산품 수출의 감소로 전년대비 2.2% 하락함, 또한 연간 수출 금액지수도 공산품 부문이 큰 폭으로 하락(-10.4%)함

☞ 반면 '19년 12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함,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대비 0.9% 하락

-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감소하였지만 컴퓨터, 전자 기기,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12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함

21)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6222&menuNo=200690&pageIndex=3>, (2020. 02. 20 검색)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률

구분	수출물량지수					수출금액지수				
	9월	10월	11월	12월p	2019년p	9월	10월	11월	12월p	2019년p
총지수	-2.1	-4.6	-2.5	7.7	-2.2	-12.7	-15.6	-12.5	-0.9	-10.3
농림수산물	20.9	15.2	-6.5	31.4	10.7	13.3	6.5	-13.3	18.3	6.4
공산품	-2.1	-4.6	-2.5	7.5	-2.2	-12.8	-15.7	-12.5	-1.0	-10.4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2020. 1. 29)

주: 당월지수는 잠정치(p)이며 2015=100 기준임.

② '19년 연간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 지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8%, 6.3% 하락

☞ '19년도 연간 수입물량지수는 농산품과, 공산품 부문 모두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 하락함, 한편 연간 수입 금액지수는 물량지수보다 더 큰 폭(-6.3%)의 하락을 기록함

☞ 반면 '19년 12월 수입물량지수는 전자 및 광학기, 운송장비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

- 반면 수입 금액지수는 광산품, 1차 금속제품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함

수입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률

구분	수입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9월	10월	11월	12월p	2019년p	9월	10월	11월	12월p	2019년p
총지수	1.6	-6.4	-4.2	4.8	-1.8	-5.7	-14.4	-13.7	-1.0	-6.3
농림수산물	-5.6	-18.7	-6.6	6.2	-1.4	-5.6	-18.7	-7.2	6.0	-3.0
공산품	-10.2	-12.2	-5.6	-0.1	-5.7	-19.5	-24.5	-22.3	-8.7	-11.4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2020. 1. 29)

주: 당월지수는 잠정치(p)이며 2015=100 기준임.

③ '19년 연간 순상품 및 소득 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각각 3.9%, 6.0% 하락

- ☞ '19년 1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5%) 대비 수출가격(-7.9%)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
-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7.7%)가 상승하여 순상품교역조건지수(-2.6%)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 모두 하락하여 전년 대비 2.8%p 하락함

12월 교역조건지수 등락률
(달리기준)

구분	교역조건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년 9월	19년 10월	19년 11월	19년 12월p	2019년p
순상품교역조건지수	-4.0	-3.3	-0.4	-2.6	-3.9
소득교역조건지수	-6.0	-7.8	-2.9	4.9	-6.0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2020. 1. 29).
주: 당월지수는 잠정치(p)이며 2015=100 기준임

2) 양곡

① 우크라이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곡물 수출은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²²⁾

- ☞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곡물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곡물 수출에 대한 영향은 낮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및 해바라기유 주요 수입국으로 현재 중국 내 물류, 지역배송 등 어려움은 있지만 미국산 옥수수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로 중국 내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1월 4주차인 25일~31일 사이에만 약 20만 8천 톤의 옥수수를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실제로 2019/20년 시즌 우크라이나의 대중국 곡물 수출은 3,68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통상 농업개발부 정부관계자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이 대중국 곡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087\(2020.2.20. 검색\)](http://www.krei.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087(2020.2.20. 검색))

3) 시멘트

① '20년 건설자재 수요 감소세 전망²³⁾

- ☞ '17년 이후 지속된 건설수주 감소세가 '20년에도 지속되어 레미콘,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요도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19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으로 인해 민간주거 부문의 건설경기 악화가 심화되어 건자재 수요의 감소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3)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68&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tech_prospect&dataId=37206&pageIndex=1\(2020. 02. 02. 검색\)](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68&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tech_prospect&dataId=37206&pageIndex=1(2020. 02. 02. 검색))

- 주요 건자재별 수요전망은 콘크리트 파일 540만 톤(-8.8%), 타일류 1억 3,391만㎡(-7.3%), 시멘트 5,110만 톤(-6.6%), 레미콘 1억 3,900만㎡(-4.1%), 합판 201만㎡(-4.2%)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됨²⁴⁾

24) 괄호()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2020년 국내 건설자재 수요 전망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콘크리트파일(천 톤)	6,339	2,740	3,180	5,920	-6.6	2,600	2,800	5,400	-8.8
타일류(백만㎡)	164	70	73	144	-12.3	65	68	133	-7.3
시멘트(백만톤)	57	28	27	55	-3.5	25	27	51	-6.6
레미콘(백만㎡)	156	73	72	145	-6.9	69	71	139	-4.1
합판(천㎡)	2,142	1,051	1,043	2,094	-2.2	1,004	1,003	2,007	-4.2

자료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4) 모래

① 전국 골재가격 하락세 심화²⁵⁾

☞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로 야기된 레미콘 수요 감소와 동종 골재업계 간 가격 경쟁 등으로 골재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골재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별파쇄 골재의 '20년 1분기 공급가는 '19년 4분기 대비 약 20% 감소한 1만 2천원(㎡당) 수준임
- 같은 기간 산림골재는 20% 감소한 1만 3천원, 바닷모래는 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음
- 특히 약 2년 만에 재개된 인천 웅진군 바닷모래의 경우 채취허가 직후인 '19년 10월 1㎡당 약 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경쟁 골재류와의 가격 경쟁으로 현재 수준까지 하락
- 실제로 건설경기 악화로 골재사들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되어 가격 덤핑 등 단가경쟁의 심화로 몇 개월 사이에 약 20%의 가격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5) 건설경제신문,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2071320002550690#cb\(2020.02.02.검색\)](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2071320002550690#cb(2020.02.02.검색))

5) 석탄

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 제안 필요성 제기²⁶⁾

☞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 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으로 제안

- 산업통산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을 제시함
- 위원회에서 제시한 5대 추진방향은 ①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 제시, ②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③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④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⑤미래산업 트렌드 반영 전력수요전망 등임

26)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xe/press/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507&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8&search_val_v=
(2020.02.04. 검색)

-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과 친환경·분산형 전원 믹스 개선 등을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노후석탄발전의 LNG 대체 등 이행방안 마련을 촉구함
- 또한 '18년 7월 수립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 온실가스 3,100만 만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만큼 발전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한 실현가능한 이행방안 마련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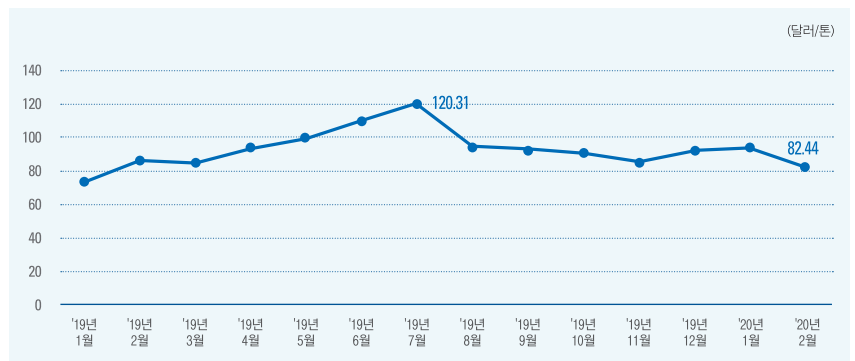
6) 철광석

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철광석 가격 급락²⁷⁾

- ✎ 철광석 교역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던 철광석 가격이 2월 급락함
- 2월 10일 기준, Fe 62% 철광석 가격은 톤 당 82.44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 대비 11.9% 하락함
- ✎ 철광석 가격은 '19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 증가 및 철강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11월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음
- '19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10억 6,900만 톤으로 3년 연속 10억 톤을 돌파하였으며 역대 2위 기록임
- 또한 중국의 '19년 철강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7.6% 증가한 9억 9,288만 2천 톤을 기록함
- 한편, 철광석 가격은 '19년 초 브라질 광미탐 붕괴사고 및 호주 사이클론 영향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7월 톤 당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공급부족 해소로 하락 후 중국 철강 생산 증가와 함께 다시 상승 중이었음
- ✎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 및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금년 중순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27)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19.2.10.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19.2.10. 검색))

철광석 월별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0.2.10. 검색 기준)
주 : 62% Fe, 중국 청다오항 도착 가격 기준

7) 기타광석

① '19년 12월, '동(copper)'은 전월 대비 가격 상승, 아연과 니켈은 가격 하락²⁸⁾

📌 '동(copper)'은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 등 호재로 인해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함

- 미·중 1차 무역합의를 통한 세계 경기 개선 기대, 중국의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 및 자동차 부문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동'에 대한 수요가 회복돼 12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3.5% 상승한 톤당 6,062달러를 기록함
- 또한, 칠레의 반정부 시위 여파로 11월 동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50만 4천 톤), 잠비아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는 등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함
- 또한, 칠레의 반정부 시위 여파로 11월 동 생산량은 50만 4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고, 잠비아 광업세제 개편의 여파로 인한 광산생산 차질로 11월 동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는 등 주요국의 동 광산의 생산차질 이슈가 발생하여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함
- 하지만 1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First Quantum사가 '20년 증산계획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 상승 요인을 일부 상쇄하고 있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아연은 미·중 1차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 공급 과잉 예상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함

- 미·중 1차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개선되었으나, '19년 중국의 제조업 부진, '20년 세계 아연광산 증산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예상돼 12월 아연가격은 전월 대비 6.5% 하락한 톤당 2,274달러를 기록함
- 중국 정부당국에 따르면 '19년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5.6%를 기록함
- 페루와 호주 아연광산 생산 증산에 따라서 '20년 세계 아연광산 생산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과잉이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함

📌 니켈은 공급부족이 해소되면서 전월에 이은 가격 하락세 지속

- 니켈시장은 인도네시아 원광수출 금지정책 시행 발표로 인해 8월 톤당 18,000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인니 원광 수출 증가추세 유지, 중국의 니켈원광 채고 증가로 12월 니켈가격은 전월 대비 9.2% 급락한 톤당 13,801달러를 기록
- 다만, 필리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니켈광 생산 감소 등 '20년 니켈선철 산업의 원재료 공급 부족 이슈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 하방압력이 부분 상쇄될 가능성도 있음

28) 자원시장 월간동향, 19-12호, 한국광물자원공사, 2019.12

8)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국내 석유화학업체, 인도네시아 정부와 활발한 협력 관계 모색²⁹⁾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체들과 사업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에 있었으며 특히 유화 및 소재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국내 유화업체들도 중국을 탈피하여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에 거점을 마련하고 관련된 사업에도 진출하고자 인도네시아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 투자 확대 예정
- ☞ LG화학은 전기차 및 전기오토바이 사업, SK는 유화산업, 롯데케미칼은 유화단지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투자 검토 및 투자 진행 중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직접 LG화학에 러브콜을 보내 자국의 전기차 시범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지업체들과 LG화학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자국 유화제품의 6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SK그룹의 투자를 요청하였음
- 롯데케미칼은 이미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 작업 중으로 약 5조원 투자 예정임

② S&P Global Platts, 중국내 정제능력 과잉 문제, 올해 석유수급 전망 등 발표³⁰⁾

- ☞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은 자국 해안지역에 신/증설되는 석유화학사들로 인해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정제능력의 3.5%, 중국내 정제능력의 25%를 차지하는 산동성 소재 독립 정유사들은 대형 석유업체들이 역으로 석유화학산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규모의 경제, 물류비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임
- ☞ '19년 중국의 신규 정제능력이 약 90만 b/d 추가되었으며 추가로 건설 중인 정제설비도 118만 b/d 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둔화, 환경규제 및 중국 내 연료수요 약화 추세를 감안하면 석유제품 수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접 국가로 수출 물량 증대 예상됨
- '20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25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공급 또한 비OPEC 국가인 브라질, 노르웨이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IMO 규제에 따라 기존 고유황유 300만 b/d 대부분이 저유황유, 해상경유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스크러버, LNG 등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전체의 15~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함

29)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회원사동향 자료, [http://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0516/page/5/term_id/6/v_mode/user\(2020.1.14\)](http://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0516/page/5/term_id/6/v_mode/user(2020.1.14))

30) 대한석유협회 글로벌 오일 뉴스레터, [http://www.petroleum.or.kr/ko/material/material6.php?option=&keyword=&category=&id=1754&page=1&mode=read&b_type=\(2020.1.10.\)](http://www.petroleum.or.kr/ko/material/material6.php?option=&keyword=&category=&id=1754&page=1&mode=read&b_type=(2020.1.10.))

9) 목재

① 관세청 통관 기준 '19년 목재 수입량, 주요 수입국 중심으로 감소³¹⁾

☞ 감소율은 상이하나 목재 품목 7종 모두 수입이 감소함

- 목재 품목 7종은 원목, 제재목,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임
- 감소율이 가장 큰 품목은 파티클보드이며 '19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한 118만 8천m³를 기록함
- 그 외에도 품목별로 원목 13.6%, 목재펠릿 12.9%, 성형목재 10.7%, 합판 10.1%, 섬유판 7.1%, 제재목 5.6% 감소함
- 특히, 원목은 수입량의 87.3%에 해당하는 상위 3개 국가 모두 전년 대비 10%대 실적 감소(뉴질랜드산 -16.2%, 미국산 -13.1%, 캐나다산 -19.3%)를 기록함
- 원목의 경우, 자급률 상승과 건설경기 둔화, 원목 가공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전반적인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국내 목재 항만 물동량도 감소 추세를 이어감³²⁾

- 국내 목재 벌크 물동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년 물동량은 전년 대비 15.5% 감소함
- 항만 물동량의 경우, 전반적인 원목 수요의 감소와 목재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컨테이너화 비중 '10년: 49.9%, '19년: 84.4%)

31) (사)대한목재협회 국내외목재시황 자료 (2020.02.14), <http://dmh.or.kr/forceboard/board.php?board=wood01&command=bodys&no=162>(2020.02.14. 검색)

32)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main/intro.xml>(2020.02.14. 검색)

10) 고철

① 고철 수입 물동량 4년 연속 증가세 기록³³⁾

☞ '19년 고철 수입 물동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529만 9천 톤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13년 593만 7천 톤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세를 기록함
- 특히 일본으로의 수입 물동량이 연평균 7.7%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및 러시아는 같은 기간 연평균 6.1%, 2.7% 감소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6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4.3%p 하락하였으며 러시아도 14.3%로 전년 대비 4.8%p 하락함

- 일본의 경우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 강화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경우 자국 내 고철 수출 금지 정책에 따라 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미국과 중국은 전년 대비 비중이 각각 5.0%p, 4.1%p 증가함

- 미국산 고철은 전년 대비 70.8% 증가한 65만 5천 톤, 중국은 같은 기간 234.3% 증가한 30만 9천 톤을 기록함

33) 통합 Port-Mis(2020.2.10. 검색), KMI 작성

국가별 고철 수입량 추이

(단위:천 톤, %)

구분	합계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그 외
2015	4,592	2,481	804	730	397	180
2016	4,854	2,805	1,155	445	412	38
2017	5,165	3,447	1,077	136	258	247
2018	5,274	3,554	1,007	385	93	235
2019	5,299	3,343	759	655	309	233
비중('19)	100	63.1	14.3	12.4	5.8	4.4

자료 : 통합 Port-Mis,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11) 철재

① '19년 12월 세계 조강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1억 5,212만 1천 톤 기록

-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아시아 증가량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생산량 증가를 견인함
- EU 지역이 전년 동월 대비 13.2%(-150만 8천 톤) 감소하였지만 아시아가 같은 기간 7.5%(+782만 톤) 증가함
-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만이 전년 대비 11.6%(+877만 6천 톤)증가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감소세를 기록함

'19년 12월 세계 조강생산량

(단위: 천톤,%)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12월	누적	12월	누적	당월	누적
EU(17)	11,392	149,399	9,885	141,406	-13.2	-5.4
other Europe(9)	9,152	107,061	8,660	106,271	-5.4	-0.7
North America(2)	8,459	100,050	8,442	100,717	-0.2	0.7
South America(10)	4,940	64,031	4,527	58,660	-8.4	-8.4
Middle East(5)	5,916	72,894	6,681	76,619	12.9	5.1
Africa(3)	1,148	14,530	904	13,530	-21.2	-6.9
Oceania(2)	507	6,341	506	6,160	-0.2	-2.9
Asia(11)	103,726	1,263,051	111,547	1,330,376	7.5	5.3
- China	75,489	922,797	84,265	992,882	11.6	7.6
- India	9,356	109,272	9,281	111,245	-0.8	1.8
- Japan	8,463	104,319	7,784	99,284	-8.0	-4.8
- South Korea	6,163	72,464	5,876	71,421	-4.7	-1.4
- Taiwan ,China	2,038	23,240	1,740	22,065	-14.6	-5.1
Others	919	11,516	915	11,337	-0.5	-1.6
World	146,207	1,788,873	152,121	1,845,075	4.0	3.1

자료 : 세계 철강 협회, www.worldsteel.org(2020.2.10 검색)
주 : 매월 업데이트됨에 따라 전월 수치가 재확정됨

① '20년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³⁴⁾

- ✎ '20년부터 철강 부원료 품목에 적용되던 기본관세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가 적용됨
 -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관세는 '04년부터 철강 반제품 및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된 반면 부원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유지되고 있음
- ✎ 철강 부원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관세는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이에 매년 철강협회와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 부원료 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함
 -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법적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반기 또는 연간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 '20년부터는 총 9개 품목에 대해서 적용 될 예정이며 이는 '17년 3개 품목, '18-'19년 5개 품목에 이어 협회와 업계의 노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9개 품목으로 탄소전극,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티타늄괴, 니켈괴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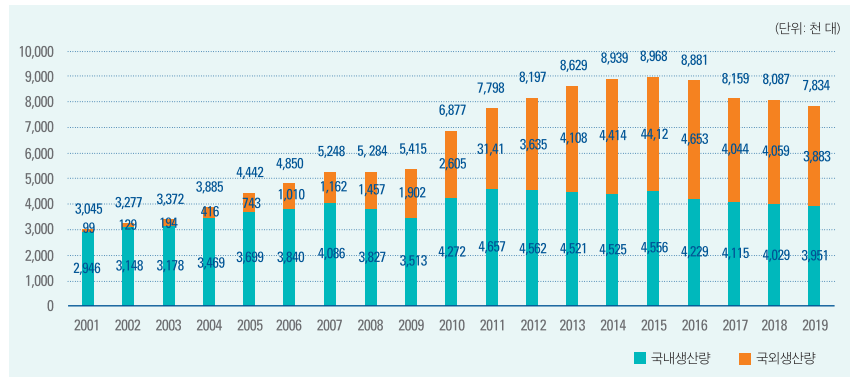
34)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제46권

12) 자동차

① '10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국내 자동차 연간 400만 대 생산 기록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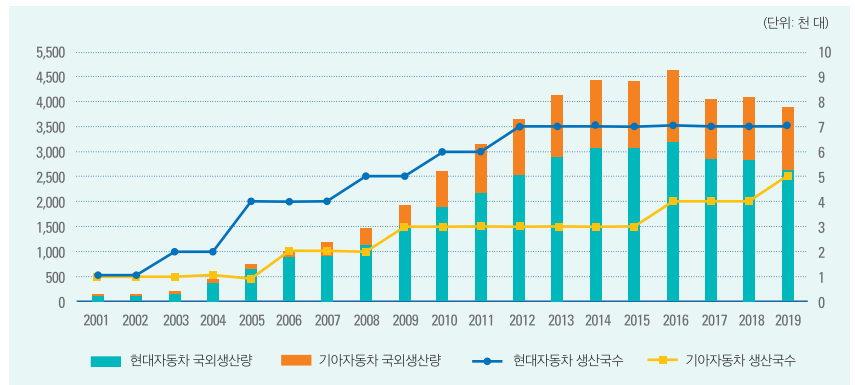
- ✎ '15년부터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작년 400만 대 미만의 생산 실적을 기록함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07년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08년과 '09년에는 400만 대를 하회함
 - 그 후, '10년부터 '18년까지 9년 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 대 이상을 기록함
- ✎ 국내 생산량과 더불어 '13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국내 기업의 국외 자동차 생산량도 400만 대 기록 달성에 실패함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대하면서 국외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16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19년 400만 대를 밀도는 생산량을 기록함
 - 글로벌 생산기지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년에도 기아자동차 인도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으나 중국 내 수요의 감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음

‘국내 자동차 생산량’ 및 ‘국내 기업 국외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센터 생산판매통계(유료자료), 저자 재작성, <http://www.kama.or.kr/NewsController>(2020.02.06 검색)

‘국내 기업의 국외 생산량’ 및 ‘생산국가 수’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센터 생산판매통계(유료자료), 저자 재작성, <http://www.kama.or.kr/NewsController>(2020.02.06 검색)

📌 최근 지속되는 자동차 산업의 악재와 수요 감소, 경쟁력 하락으로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생산량 400만 대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상징적인 숫자였으나, 계속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악재로 올해 역시 400만 대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올해에도 쌍용차의 경영난, 르노삼성의 위탁생산 감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부 공장 운영 중단 및 내수시장 침체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개편,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19년 완성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수출하면서 수출액은 2.8% 증가함

13) 잡화

① '19년도 국내 기계 산업 수출입 금액은 2,033조 달러, 1083조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6%, 7.5% 감소함³⁵⁾

수출금액은 수송기계 부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은 일반기계(-14.9%)와 정밀기계 업종(-15.5%)에서만 큰 폭으로 감소함

- 조선업의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7.0%)으로 감소하여 '19년도 수송기계 부문의 연간 수출금액 증가세를 둔화시킴

35) 한국기계산업진흥회,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0.2.20. 검색),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단위: 백만 달러, %)

'19년도 연간 기계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수출		수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기계산업	203,336	-1.6	108,298	-7.5
일반기계업	52,322	-1.8	33,545	-14.9
전기기계업	35,361	-1.9	20,405	0.3
정밀기계업	16,535	-1.5	21,034	-15.5
수송기계업	88,971	0.5	26,580	0.6
조선	18,912	-7.0	1,235	-22.8
금속제품업	10,147	-15.1	6,734	12.5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2020.2)

국가별 수출금액은 미국(6.5%), 베트남(3.2%), 일본(2.3%)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함

- 전년 대비 수입금액은 베트남이 가장 큰 폭(26.7%)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22.4%, 4.7% 감소함
- '19년도 국가별 수출비중은 미국(19.7%), 중국(16.6%), 베트남(7.4%)순인 반면 수입은 중국(24.1%), 미국(17.4%), 일본(16.0%)이 상위 3개 국으로 나타남



연구책임자

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경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안승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3. 6.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